

# 石油공급체제의 變化

## 머리말

**최** 근의 石油供給事業은 급속한 변화와 不確實性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5년전 세계에서는 石油의 공급규모, 가격의 급등, 소비국에서부터 생산국으로 富의 大移動이 일어났었다. 오늘날 石油의 수요는 1979년을 피크로 대폭 감퇴하고 있다. 油價도 1979년을 피크로 하락세를 지속, 지금은 소비국 뿐만 아니라 생산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심각한 經濟不況에서 탈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石油産業에 있어 공급활동의 기본적 목적은 고객이 희망하는 적정한 품질과 分量의 石油를 원하는 日時와 장소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石油會社는 油田에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는 공급시스템에 충분한 투자를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고객의 요구와 급격한 단기적 石油수요의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石油공급 패턴의 혼란으로 인해 때때로 需給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數日, 수주간 또는 수년간 계속될 때도 있으며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불균형을 가져오는 요인은 대개 정치적인 것으로 革命, 전쟁, 輸出禁止, 石油생산규제, 수요할당, 소비자가격 통제 등이다. 과거 10년간 전통적인 공급체제는 石油의 공급체질과 石油수요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수정이 부득이 했다.

과거 10년간 세계의 경제체제가 경험한 2회의 심각한 석유위기의 意義는 현재 아직도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상업적, 경제적 원칙을 기본으로 한 점진적 발전이 급격한 단기적 변혁에 의한 발전보다도 먼 장래를 생각하면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石油危機와 그 影響

石油供給활동에 작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石油수급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石油와 天然휘발유(NGL)의 소비는 확실히, 또는 때에 따라 급격히 성장했으나, 1973년과 1974년에 中東產油國이 취한 石油생산제한과 수출금지조치 때문에 그 성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產油國은 이를 기회로 原油가격을 배럴당 2달러에서 11달러로 단숨에 인상했다. 石油공급이 정치적 불안과 가격의 대폭 인상에 대해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소비국은 일련의 對應策을 차례로 준비했는데,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주요소비국 정부는 1974년에 國際에너지機構(IEA)를 설립했다. 또한 代替燃料의 개발을 통한 石油輸入 의존도의 경감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에너지절약과 石油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투자에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경향은 1978년 10월 이란의 石油生産 중단과 그후의 諸事件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

다. 500萬b/d의 이란石油輸出의 중단(OPEC 전체 輸出의 18%)은 石油의 爭奪戰을 일으켜, 이로 인해 現物市場의 石油가격 중에는 1979년말경 배럴當 40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公式販賣價格은 13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되고 그 후 약 2년간은 5달러~8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1979년 3월이 되자, 이란은 소량이지만 수출을 재개했다. 그러나 시장에는 그 후 몇 개월 동안 石油확보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었다.

## 供給의 增大

石油부족에 대한 불안이 널리 퍼져 있기는 했지만, 1979년을 통틀어 보면 이란의 생산감소로 결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다른 產油國의 수출증가에 의해 상쇄되기도 餘力이 생겼다. 그 결과 1979년 OPEC의 평균생산량은 3,170만b/d가 되어 1978년의 생산을 오히려 100만b/d나 상회하는 결과가 되었다.

石油소비국 정부와 石油會社는 19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OPEC地域 이외에서 石油의 발전과 생산에 힘써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石油가 새로 공급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세계 전체의 石油생산은 1979년에 5,300만b/d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1978년말부터 1980년 중반에 걸쳐 가격이 3배로 뛰어 올라, 現物市場가격과 政府販賣가격이 32달러에서 35달러의 높은 수준에 이르자 石油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란의 생산은 감퇴되고 다른 OPEC生産國 특히 쿠웨이트는 생산의 상한을 설정하여 배럴當 收益을 높임으로써 歲入目標을 달성하려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000만b/d라는 高水準의 石油생산을 유지하고, OPEC 基準原油의 公式價格보다 2달러에서 4달러 싼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수준이 억제되었다. 石油業界의 재고는 1980년에 55億 배럴이라는 空前의 수준에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 중에 1980년 9월에 이란, 이라크 戰爭이 일어나 양국의 石油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1980년말에 OPEC 전체의 생산은 1977년말 수준을 약 750만b/d 상회했다. 다시 石油供給國과 소비국 사이에 불안감이 널리 퍼져 가격은 상승했다.

## 需要에의 影響

1981년초에 배럴당 32달러의 아라비안라이트 原油와 其他 OPEC原油(1 배럴當 36달러 수준)와의 가격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가장 高價의 輕質 低硫黃原油는 배럴當 40달러나 되었다. OPEC諸國은 1981년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가격체계에 대해 合意, 아라비안라이트 34달러를 기준으로 보조를 맞추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적절한 것이 아니었으며, 가격수준도 너무 높았다.

1973년과 1979년의 2회에 걸친 석유위기로 인해 세계의 石油수요는 축소되어 1980년부터 感退一路를 걸어 왔으며, 4년후인 금년에 이르러서 겨우 수요는 다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石油의 高價格과 경제불황, 失業者의 증대, 高金利, 高인플레이션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활동이不振해져서 石油소비자 중에 폐업하는 사람이 늘어 소비자의 購買力이 전체적으로 감퇴, 많은 石油소비자가 石油보다 값이 싼 代替資源에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3년 세계의 石油수요도 약 4,450만b/d로 1979년 당시의 수요량 5,220만b/d에 비해 15% 하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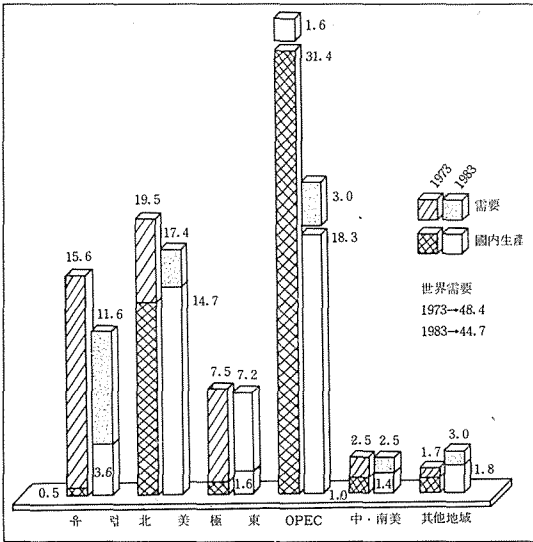
## 構造的 變化

石油의 高價格과 수요의 감소로 인해 石油産業의 구조는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그 변화에 따라 石油供給패턴도 영향을 받고 있다. 經濟不況과 특히 石炭, 가스, 原子力發電과의 경합으로 인해 이전에는 重油가 공급되었던 많은 販賣先을 빼앗겼다. 이들 販賣先은 電力業界 처럼 거래량은 크지만, 마진은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石油의 수요는 輸送用, 石油化學用, 潤滑油用 등 사용상 유리하고 현실지에서 代替燃料과 경합하지 않는 분야에 집중되어 가고 있다.

先進工業國에 있어서 重工業의 쇠퇴와 新興工業國의 발전으로 인해 石油수요의 지역적 분포는 변화되고 있다. 新興工業國에서는 石油의 소비가 앞으로 상당히 증가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石油가 발견되고 생산하는 나라가 종래보다 증가하고 있어서 그만큼 국제간의 무역량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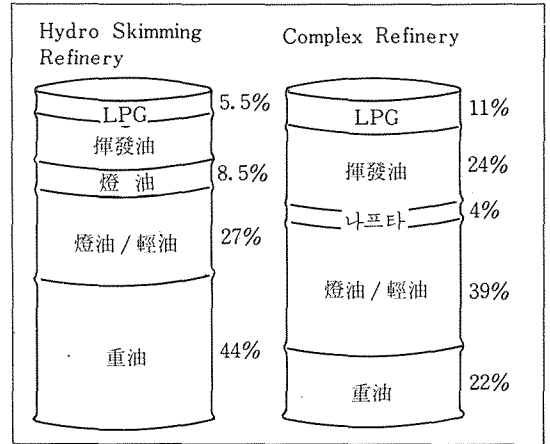
〈그림 - 1〉 세계石油수요와 생산추이

(單位: 백만B/D)



〈그림 - 2〉 아라비안 라이트 (API 34도)

原油처리收率의 一例



### 原油로부터의 製品收率

이러한 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라 Hydroskimming Refinery (常壓蒸留, 改質, 水添脫黃 장치)에 의한 製品收率は 세계의 많은 시장에서 제품수요에 재빨리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공업국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이들 나라에서는 重油의 수요가 격감하고 輸送用 휘발유나 重間溜分の 수요가 비교적 활발하다.

美國에서는 重油의 수요구성비율이 1978년의 약 16%에서 11%로 떨어졌으며, OECD에서는 同期間에 29%에서 24%로 낮아졌다. 石油會社가 重油를 白油로 분해하기 위한 精油設備투자에 힘쓰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런 상황 때문이다.

製品의 供給을 이와 같은 需要의 變化에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會社가 分解裝置를 확보함으로써 값싼 重質原油와 殘渣油 原料를 處理, 收益性を 높이고자 하는 方法이 研究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製品과 原料의 分解 및 白油化의 經濟性은 精油所의 設備能力 過剩, 石油의 供給過剩, 需要의 減退에 의해 허물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原油輸出國은 石油供給체인의 더 많은 確保를 위해 製品輸出用 精油所 建設에 나서고 있다.

이들 製品輸出에는 原油輸出에 使用하는 것보다 小型이고 特殊한 規格의 탱커를 使用해야 함으로 運賃上 不利한 點이 있으나 精油所에서는 比較的 값이 싼 燃料를 使用할 수 있기 때문에 不利益의 일부는 상쇄된다.

몇개의 대규모 수출용 정유공장이 1984년부터 1985년에 걸쳐稼動을 시작할 예정이다.

美國, 유럽, 日本 등 工業國의 정제능력은 수요가 1970년대 중반에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감퇴함으로써 이미 과잉상태가 되고 있다. 세계의 常壓蒸留설비능력의 30%~40%가 과잉상태이고, 그 대부분은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 產油國 정유공장의 가동과 새로운 분해시설의 증설로 인해 많은 工業國에 있어서 기존 정제설비의 폐쇄 또는 합리화에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輸送과 供給

공급체인의 다른 분야도 유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石油탱커業界는 수요의 2배나 되는 탱커를 갖고 있어서 船主는 배를 놀리거나 廢船해야할 형편이다. 최근의 運賃수준은 수급균형 개선의 노력 결과 조금 호전되고 있으나, 그래도 마진은 마이너스거나 매우 低額이다. 運航코스도 연료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減速 運항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으나, 장래에 대비한 投資資金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마진을 회복하려면 더욱 어려가

지 대책이 필요하다.

잉여현상은 石油貯藏탱크, 石油파이프라인, 공 급시설, 注油所의 분야에도 존재한다. 업계의 몇 몇 회사는 그 대응책으로서, 치열한 경쟁때문에 마 진이 적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철수하고 자기의 힘을 가장 유효하게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보는 지역과 시장에 사업을 집중시키려 하 고 있다.

그러나 產油國의 國營會社를 비롯한 다른 회사 중에도 장기적으로 성장을 통해 확장정책을 내세우 고 있는 회사도 있다.

### 將來에의 準備

石油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했던 시대에는 설비 투자가 고객의 수요에 先行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시설과잉의 문제는 이에 따르는 間接費에 있다. 경쟁의 격화가 수요의 停滯 또는 감퇴상황하에서는 間接費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이다.

동시에 신규투자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그 것도 低品質의 重質原油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국한되고 있다. 여 것이 장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적 응방법인 것이다.

### 石油供給

石油공급의 패턴은 수요의 변화와 동시에 변하 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으므 로 원인과 결과를 가려내기는 용이하지가 않다. 그 러나 사태를 크게 변화시킨 중대한 전환이 1970년 대 초기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당시, 7大國際石油會社—엑슨, 텍사코, 소칼, (세브론), 모빌, 걸프, BP, 셸—는 세계 石油판 매량의 약 5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여러가지 利 權協定下에서 세계原油의 약 60%를 소유하고 있 었다.

그후 產油國정부와의 교섭에 따라 產油國의 사 업참가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산유국의 國營會社가 판매할 수 있는 原油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原油생산의 완전한 국유화가 이루어지 기도 했으며, 國際石油會社는 原油구매상 약간의 특권만을 남긴채 점차로 오퍼레이터나 기술의 제공

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7大國際石油會社는 세계石 油製品의 약 40%를 판매하고 있으며, 1979년 피 크에 비해 판매량은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原油판매분야에서 이들 大石油會社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하가 되었 다.

산유국의 國營石油會社는 10년동안에 原油所有 權을 세계原油의 10% 이하에서 55% 이상까지 증 가시켰다. 정부소유의 대부분은 OPEC 諸國에 속 해 있다. OPEC제국은 전체적으로 3,000만b/d의 原油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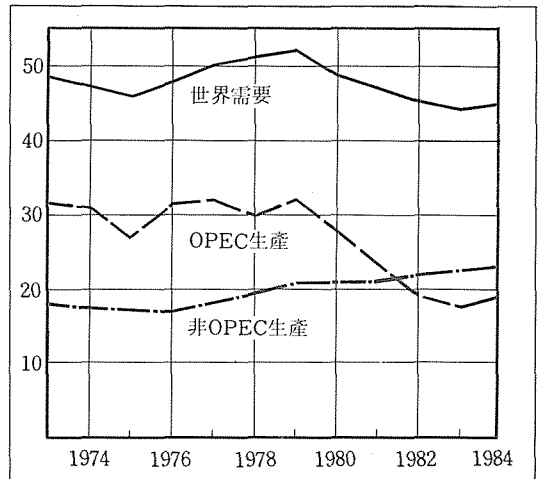
이에 비해 非OPEC諸國의 잠재력은 약 2,400만 b/d이다. 이 原油공급력에 대해 1984년 세계의 石 油수요는 약 4,500만b/d로 전망된다.

### OPEC이외地域의 生産活動강화

石油소비국 정부와 石油會社는 1970년대에 石 油가 산유국의 정치적 武器로써 이용된 일로 부터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OPEC지역 이외에서의 石 油개발활동이 강화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石油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石油産業에 관계가 없었던 많은 회사, 金融機關, 개인이 위험 을 무릅쓰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石油개발에 참 여했다.

1982년에 非OPEC 石油생산은 처음으로 OPEC 의 생산을 상회했다. 그 후에도 증산은 계속되 19

〈그림-3〉 世界石油 수급현황 100萬B/D



□ 資料 □

83년말에는 2,300만b/d를 돌파했다. 이에 비해 同年의 OPEC생산량은 약 1,850만b/d였다.

캐나다와 美國의 생산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美國에서는 알라스카州 North Slope의 石油가 다른 48州의 생산하락을 상쇄시켰다. 멕시코는 다시 주요한 原油생산·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생산은 300만b/d 이하의 수준에 규제되고 있다. 非OPEC생산증가에 기여한 그 밖의 지역은 北海, 西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東南아시아, 南아메리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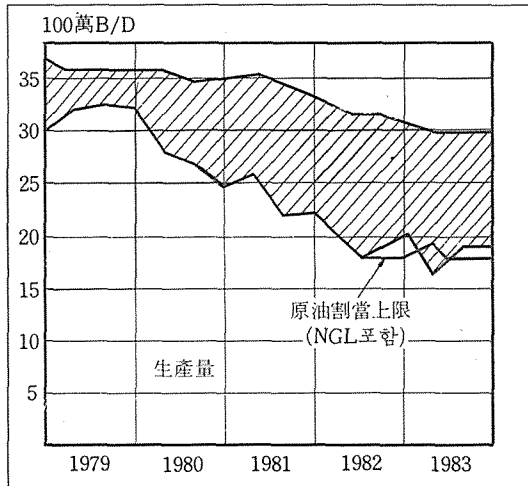
### OPEC의 供給調整 역할

OPEC의 생산은 여전히 세계에서 공급의 過不足을 조정하는 주요 소오스이며, 따라서 세계의 경제활동에는 필수적 존재이다. 그래서 OPEC 諸國이 그 책임을 어떻게 다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OPEC제국은 현재 시장안정을 위해 生産割當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 割當制는 수요와 공급의 미묘한 균형을 밀반침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생산국과 소비국은 이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이건, 기술적이건 일단 사태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이 割當制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

OPEC 諸國은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 1,100만b/d의 잉여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세계 石油수요의 약 24%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사우

〈그림-4〉 OPEC의 原油·NGL 생산추이



디 아라비아와 기타 페르시아灣 제국이다. 따라서 만일 호르무즈海峽을 경유하는 石油수송이 차단되면 잉여생산능력 중에 이용할 수 있는 量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OPEC의 큰 剩餘生産能力이 石油시장의 동향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소비국의 입장에서는 심한 경제적 압박과 石油가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급확보의 熱意보다는 단기적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의 장기계약 價行은 차츰 사라지고 만일 장기계약을 해도 가격에 대해 타협을 못 볼 때는 비교적 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는 Fade Out 條項을 첨가하고 있다. 단기계약이나 現物價格에 의한 原油買入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수요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原油와 石油製品的의 국제시장가격은 전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가격이 原油의 現物價格에 반응할 때도 있다.

최근의 石油시장에서는 原油가격에 비해 제품의 附加價値가 낮기 때문에 精油會社의 마진은 마이너스거나 겨우 약간의 플러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石油의 價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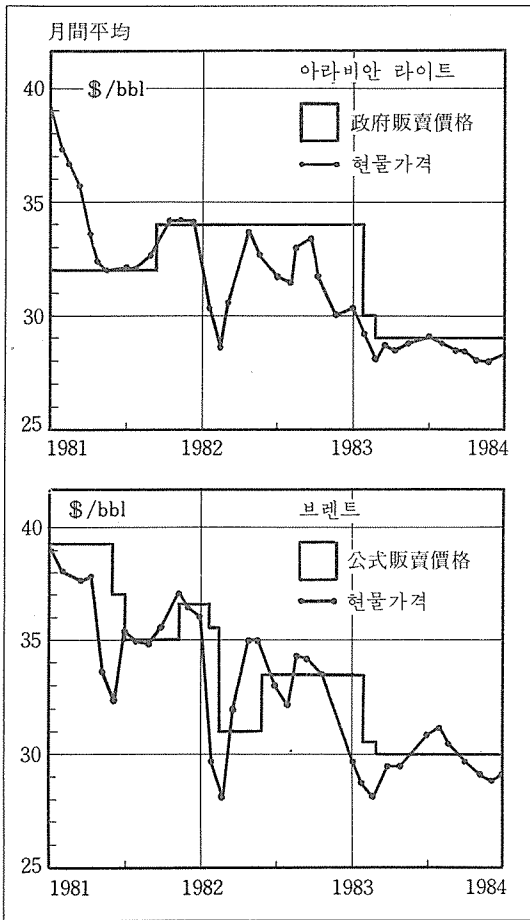
原油에는 뚜렷한 單一價格이라는 것은 없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生産國 정부에 의해 설정 또는 內示되는 가격이다. 이것은 政府販賣價格(GSP), 또는 公式販賣價格(OSP)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現物價格에 의해 거래되는 매우 단기적인 계약과 船舶단위의 거래가 있다. 이런 가격은 每日의 石油需給 밸런스와 최근 石油市場에 참여한 많은 中小會社의 무역활동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결과 現物價格은 GSP를 중심으로 上下로 항상 변동한다.

産油國 中에는 수년내 다른 판매방법을 취해 옴으로써 다른 産油國 보다도 市場實勢에 더 유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라도 있다. 매우 넓은 의미로 石油의 供給源은 두가지 주요지역으로 나뉘어 왔다.

첫번째는 環大西洋圈이다. 이 지역에는 렉키산

(그림 - 5) 原油가격 추이



脈北東의 美國(알라스카州 North Slope도 포함), 멕시코, 베네수엘라, 北아프리카와 西아프리카, 北海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 原油의 GSP/OSP는 다른 공급지역 原油價格보다도 시장의 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두번째 지역은 環太平洋圈으로 페르시아灣을 포함한다.

2回的 石油위기 이래, 運賃이 原油의 수입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떨어졌다. 또한 소비국이나 생산국이 제각기 供給源 또는 공급지역의 분산화를 꾀하고 있어서 石油는 세계 각지에서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灣과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原油는 環太平洋圈의 시장으로 보내지는 경향이 있으며, 유럽, 北美 그리고 다른 環太平洋圈의 시장으로 보내지는 量은 현재 감소되고 있다. 環太平

洋圈에는 현재 주로 現地와 아프리카의 原油가 공급되고 있다.

품질이 다른 原油間의 가격차는 때때로 정치적 배려에 영향을 받는데 이 때문에 OPEC諸國이 합의된 基準原油價格에 따라 各油種의 가격을 맞추려 할 때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輕質原油로부터는 重質原油의 단순한 蒸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高價價의 白油를 추출할 수가 있다. 또한 重質原油는 대개 硫黃과 금속의 함유량이 높다. 따라서 輕質原油는 重質原油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高價의 분해시설을 갖춘 精油會社는 값싼 重質原油와 殘渣油원료를 처리해서 產出이 맞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重質原油의 수요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장요인은 제각기 다른 原油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동기에 의해 歪曲될 때가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가격구조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투자의 결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82년에는 產油國間의 경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原油의 거래가격이 최고와 最低에서 배럴당 9달러나 가격차이가 생겼다. 이러한 가격차이의 幅은 1983년초에 OPEC이 가격과 생산제한에 대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배럴당 약 2달러~3달러까지 줄어 들었다.

## 安定供給과 市場

최근의 石油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① 石油會社의 공급 중에서 차지하는 원료(예컨대 再精製用重油)와 製品買入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原油의 매입비율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

② 在庫수준의 저하

특히 在庫수준의 저하가 눈에 띄고 있다. 石油業界의 재고는 1981년초에는 1/4, 2/4분기 소비량의 109日分에 상당하는 55億배럴이었으나, 1984년초에는 감퇴된 소비수준에서의 92日分 상당인 43億배럴까지 감소했다. 이 43億배럴중 美國은 일반적인 경향과는 반대로 戰略的 石油備蓄(SPR)을 증가하여 1983년말에 그 總量은 3億7,000萬

□ 資料 □

배럴에 달했다.

그 밖의 국가에서도 정부나 정부관계기관에서 직접 또는 國際石油會社를 통해 戰略備蓄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비축은 단기적인 공급중단에 대한 安全네트가 되며, 보험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IEA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相互融通計劃을 세웠다. 이것은 회원국중에서 만일 공급이 7%이상 부족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서로 融通하는 계획이다.

石油의 공급과 가격수준도 완화되었다. 이는 美國의 통제철폐, 製品輸出의 증가, 그리고 소련의 시장에 即應한 가격에 의한 수출이 조금이나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1980년대말까지의 기간

에 石油공급과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문제점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石油의 操業에 영향을 미쳐, 傳統的操業패턴을 변혁시킬 것인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다시 石油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안전성의 지속은 생산국이나 소비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石油産業은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彈性性이 있는 확고한 공급체제를 항상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래의 石油공급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에 巨액의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주간 石油뉴스)

□ 產油國動向 □

#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정책 방향

지난 10월 18일 런던에서 개최된 「석유와 화폐」라는 주제하의 국제회의에서 사우디가 제출한 석유 제품 및 LPG가격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격정책방향 및 일반원칙

사우디는 석유제품 및 LPG의 수출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원유공식가격, 원유 및 제품의 현물가격, 수출대상국과의 운임, 주요 西方국가의 국내 제품 가격 등을 감안한다는 大前提 하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설정하였다.

- 사우디의 가격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계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사우디의 장기 경제개발은 唯一資源인 石油에 의존한다.
- 국내 工業化의 기본원칙인 경제개발과 다변화에 따라서 석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는 에너지 實質價格의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구조적인 변화에 일부 원인이 있다.
- 과거 수년간 사우디는 原油 및 LPG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 그 영역을 제품시장으

로 확장한다.

- Petromin은 제품가격 할인으로 原油市場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 市場機能에 따른 가격설정이 구매자와 판매자에 유리하며, 시장의 안정성 및 단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양 당사자에게 확보되어야 한다.
  - Petromin의 제품마케팅 전략의 기본방향은 장기계약이다.
- 사우디는 과거의 현물시장가격이 불행하게도 市場의 안정성과 가격의 단기예측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 및 LPG계약 가격 설정에 제한적인 요소 밖에는 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물시장가격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는 동 가격에 일부 잘못된 거래가 반영되었으며, 일단 성립된 가격이 시장에서 규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 한편, 제품판매계약에서 특정제품의 政府公式價格이 진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구매자가 우려할 시에는 이에 대한 보호조항을, 그리고 가격조정을 위한 판매자 보호조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